



글 이명희

그림 도은민

장편소설 초대받은 여자

〈118〉 생각지 않은 일

“봉투가 내게 있어요. 봉투 소인을 보면 어느 우체국에서 보냈는지 지역과 날짜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집 근처 우체국 일 수도 있겠지만.”

정숙의 집에서 한 아름 근심거리를 짊어지고 나온 듯 어깨가 처져 있던 선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세한 사고 내역은 내가 좀 더 알아볼게. 혹시 주변에 그날 상황이나 그즈음 어머니와 아버지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없을까?”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바로 미경이었다. 진옥 역시 미경을

내 절친이 있어. 한동원이라고. 다음에 같이 만나게 될 거야. 우리가 같이 풀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진옥은 미술관에 선우를 내려주었다. 휴일이었지만 미술이 사무실에 있었다.

“대표님 차가 주차장에 있어서 뭘 가지러 왔다가 뺐고 가려고 있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미술이 대표실로 커피를 가져와 앉으며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다.

“달라스호텔 피트니스 클럽?”

봉투에는 선우도 회원으로 있는 호텔 피트니스 회원카드가 들어 있었다. 병원 재단과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호텔이라 명함이 살아 있을 때부터 그곳 회원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선우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선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미경과 둘이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었다.

진옥은 답 없는 선우 손을 잡았다. 과외 공부를 가르치며 선우 집을 드나들면서 자주 미경을 만났었다. 미경은 더없이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진옥을 대해 줬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선우의 눈빛에 늘 공허함이 묻어 있었다.

선우 눈빛을 보고 짐작했었다. 그가 선우의 친엄마가 아닐 수 있다고.

“우리는 지금 작군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미경이 적은 아니었다. 그건 선우도 진옥도 아는 사실이었다.

선우는 미술관 개관 후 미경을 만나지 못했다. 개관식에서 수빈 추락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경이 노심초사 선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따로 만날 여유가 없었다.

“분명히 아군인데 적일 수밖에 없는

로 가끔 이용했지만 최근 들어 자주 이용하지는 못했다.

“둘러드려야 하는데 한참 빚지를 못해서... 또 개인적으로 연락 드릴 수도 없고 해서요.”

누가요? 물을 필요가 없었다. 미술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상훈이었다.

“선물로 드린 것 같은데 이용하시죠, 실장님.”

상훈이 준 선물을 선우가 돌려받는다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직접 주셨으면 바로 사양했을 텐데 제 서랍에 두고 가져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미술은 민망한 상황을 피하겠다는 듯 바로 자리를 떴다.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이모님. 은선우 대표 잘 부탁드립니다. 이모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인경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인경이라면 큐레이터를 말하는 것이었다.

인왕산 근방 ‘근대 예술혼’ 감상하세요

청와대 춘추관에서 22일~내년 1월16일 특별전 열어
염상섭·윤동주·이중섭·나혜석 등 작품 그림 전시



문학사상 1973년 7월호에 실린 염상섭 초상(왼쪽부터), 1973년 6월호 표지 현진건 초상, 1972년 10월호 표지에 실린 이상 초상, 1973년 9월 표지 윤동주 초상.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등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 전시가 펼쳐진다. 모두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근현대 문인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춘추관에서 국립한국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영인문화관과 함께 문학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연과 도시가 맞닿은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많은 문인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1부 ‘황보 염상섭과 정월 나혜석, 달빛에 취한 걸음’ △2부 ‘빙허 현진건, 어둠 속에 맨발로’ △3부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 △4부 ‘윤동주, 짧은 순례자의 목상’ △5부 ‘문학과 함께한 화가들’ 등 5부로 구성된다.

염상섭은 서울 중간계층의 집촌인 종로구 체부동에서 태어나 대표작 ‘삼대’ 등을 통해 근대문학 최고의 사실주의자(리얼리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특별전에서는 염상섭의 ‘해바라기’ ‘삼대’ 표지와 함께 일본 유학시절부터 교분을 쌓은 나혜석이

그린 ‘견우화’의 표지 삽화가 전시된다. 현진건은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민중의 고단한 삶을 그린 1920년대 대표 작가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후 서울 부암동에 자리 잡고 ‘무명탑’ ‘흑차상지’를 집필했다. 특별전에서 ‘무명탑’의 표지와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이 실렸던 ‘개벽’ 표지 등을 볼 수 있다.

이상도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이자 천재 시인이었다. 이상의 대표작이자

본인이 직접 삽화를 그린 ‘날개’를 비롯해 이상의 삽화가 담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표지 등이 전시된다.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승의 집에 하숙했다. 이곳은 ‘윤동주 하숙집’으로 남아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윤동주는 그 시기에 시 18편을 필사해 수록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만들었다. 전시회에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표지와 함께 윤동주가 필사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알

려진 백석의 ‘사슴’ 등을 볼 수 있다. 5부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직접 장정한 문학작품 표지를 선보인다.

이중섭(종로구 누상동)이 표지를 그린 구상 ‘초도의 시’, 박노수(종로구 옥인동)가 장정한 윤석중의 ‘우리민요시화곡집’, 천경자(종로구 옥인동)가 장정한 ‘여류문학’ 창간호 등이다.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인왕산 주변은 한국 근현대 문학의 주요 산실로, 이곳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근현대 작가들의 문학적 정취와 창의성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람객들이 작가들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전시기간 동안 매일(평일 4회, 주말 6~7회) 전문 안내원(도슨트)의 작품 해설을 제공한다. 사진 찍는 곳(포토존)도 운영한다.

전시를 관람하고 설문 조사에 참여한 관람객 선착순 200명, 총 4000명에게는 이번 전시 작품인 ‘해바라기’ ‘견우화’에서 따온 해바라기와 나팔꽃 씨앗연필 기념품을 증정한다. 연필을 다 쓴 후 연필 끝에 달린 캡슐을 화분에 심으면 씨앗이 발아한다.

국립한국문학관 누리집에서는 현장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도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360’ 가상현실(VR) 영상이 제공된다. 스키이데일리/뉴시스

이집트 ‘사람·동물 미라’ CT로 내부까지 본다

서울 예술의전당 15일 개막

“죽음은 끝이 아니며,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

기원전 800년 경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타디스 혹은 타(네트)카루의 미라, 기원후 395년경 약어 미라 등 고대 이집트 컬렉션에서 나온 15개의 관, 5구의 사람 미라, 8구의 동물 미라가 한국을 찾아왔다.

네덜란드 국립 고고학박물관 소장 ‘이집트 미라展’ : 부활을 위한 여정 전시가 서울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15일 개막한다.

고대 이집트 컬렉션은 네덜란드 국립

고고학박물관이 지난 200년 동안 수집한 2만 5000여 점에 이르는 것을 알려주었다.

전시 주최측 KBS미디어, 이엔에이파트너스는 “이번 전시는 18세기 이집트 탐험가들의 최초 발견에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당시 연구물을 포함한 유물을 비롯해 250여 점의 최대 규모 유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최신 CT 스캔 기술로 사람 미라 3구와 동물 미라 1구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관람객은 디지털 기술로 미라를 벗겨내고 인체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고대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답게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원시성, 그리고 그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보물창고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현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어서 가게 될 지하세계에 대한 준비였다. 영원한 삶을 꿈꾸던 고대 이집트인들과의 만남은 유한한 인간의 삶과 역사를 되돌아보게 한다. 전시는 2023년 3월 26일까지.

배우 류승수와 신예은이 오디오 가이드에 참여했다. 네이버 바이브(NAVER VIBE) 앱을 통해 무료로 청취할 수 있다. 뉴시스



양조장 모형(왼쪽부터), 아멘호테프의 내관, 무릎 위에 호루스 신을 얹힌 이시스 여신. 뉴시스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

홍찬선 지음 | 352P
18,000원

- 이 소설은 샘(喪)이다. 작가가 짧은 기간 내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낸 샘이고, 우리가 이야기해 풍긋하면 다음 아님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샘이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시리디 시리게 맑은 샘이다. 정겨웠던 한국 농촌에서 때 묻지 않은 아이의 눈동자로 퍼 올린 샘이다. - 최문형(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겸임교수, 작가, 칼럼니스트, '식물처럼 살기' 저자)
-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초보 소설가로서는 돈키호테 같은 말로 들린다. 하지만 ‘꿈은 아름답고 상상은 즐겁다. 삶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가 조국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타처럼 얽혀있는 갈등을 푸는 불쏘시개가 된다면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세계일보>
-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가치 전도의 세상에서 진영논리에 얽히지 말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품격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배고픈 시대가 지났는데도 조화보다는 갈등, 협동보다는 투쟁적이라면 김구 선생이 언급한 문화국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원뉴스>
-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천가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는 초인, 니체가 아닐까. 아니라면서 늘 거기에 서 있다. 아주 큰 나무 같은 사람. 그래서 오라버니 품처럼 정겹다. 소설집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도 그렇게 읽힌다. 그가 말하는 촌놈은 사상가이고 철학자이다. 그가 좋다. 사람 냄새가 나서 참 좋다. <이태경 시인>
- 자신의 어렵던 시절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용기다. 그런 용기는 현재의 만족함에서, 어느 고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힘이다. 더 어렵고 더 힘겨운 소설 같은 과거사를 보자기에 신주단지처럼 포장한 사람들은 이런 용기를 부러워 할 것이다. 여러 야채를 위에 계란 하나 올리고 새콤한 유자 소스 얹은 샐러드 같은 한상처럼 잘 받았다. <신경자 수해설가>



홍찬선의 또 다른 작품!

- <임시정부 100년 시대 조국의 기생충은 누구인가 / 27,000원>
- <삼 DMZ해원가 / 20,000원>
- <얼-3·1정신 혼찬송 / 15,000원>
- <길 - 대한제국 진혼곡 / 23,000원>
- <일제종주주의 / 홍찬선 외 5인 공저 / 21,000원>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 : 070-7868-8799

